백두산

38호 - 주체91(2002)년 5월 22일 (수)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총비서 현지지도

태천3호청년발전소, 구성공작기계공장 등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새로 건설된 태천3호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이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서북지구의 풍부한 물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할뿐아니라 서해안의 관개용수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평안북도내 청년건설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어렵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3년이라는 짧은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발전소건설정형과 전력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이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만난시련을 뚫고 헤치며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운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청년들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미덥고 자랑스러운 청년전위들의 용감무쌍한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대진군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발전소종업원들의 살림집들을 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력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인민경제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같은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평안북도에 있는 구성공작기계공장과 구성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공장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으며 수자조종선반, 시린다보리반을 비롯하여 수많은 최신식공작기계들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특히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대의 콤퓨터로 공작기계들을 조종하는 장치를 개발완성함으로써 기계제작공업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가공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돌아 보시면서 기술개건, 현대화의 추진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화, 과학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은 높이 평가할만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처럼 과학기술발전을 첫자리에 놓고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구성닭공장을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히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건설된 현대적인 닭공장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것과 함께 이미 건설된 닭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량품종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닭공장들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기남비서들과 리용철, 장성택, 주규창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2002/05/20 조선중앙통신

해외동포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9일 김주식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금강보험주식회사일군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그이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김일성**주석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 드린 훈장들과 메달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자주시대의 걸출한 위인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던 나날들을 돌이켜보게 하는 울음홀과 그이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렬차와 승용차를 주의 깊게 돌아 보았다.

해외동포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2002/05/20 조선중앙통신

2 종합
- 미국 또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북 포함시켜
- 고려호텔 44층원형식당에서의 ≪무기거래≫ 보도는 날조
- 5.18시민법정, 전남도청에서 열려
- ≪친북좌익세력명단≫ 발표는 반민족반통일행위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8)

6 세기와 더불어
- 8장 6절 밀림속의 병기창(1)

8 칭송
- 아동단원들의 친근한 지도자
- 이름 대신 고운 그림을

9 노동신문 정론
- 오성산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이회창은 청년학생의 적
- 구정치인 퇴출시켜야
- 학습은 활동가의 첫째가는 임무

13 투쟁보도
- 통일연대, 통일부 항의방문
- 훌륭한 대걸작 황홀한 공연
- 이회창 97년 아들 병역비리 조직적 은폐
- 진보정당 서울시장후보, 방송 출연
- 진보정당과 방송
- 월드컵에 노점상 밥그릇 날아가나
- 민주노총, 22일부터 파업 돌입

15 운동강좌
-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2)

미국, 또 《테러지원국》명단에 이북 포함시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은 호전광부시가 지목한 이북을 비롯한 이른바 《악의축》국가들을 모두 《테러지원국》명단에 다시 포함시켜 내외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이번께 발표할 《연례세계테러보고서》에서 이북을 포함한 이라크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또다시 제정하는 용납못할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이 이북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은 올해로 15년째나 됩니다. 이것은 이북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명하라는 내외 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북은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북은 이미 테러분자와 관련해 미국과 여러번 협상했으며 테러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북은 지난해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인질반대국제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이북이 세계적으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줍니다.

미국이 그 무슨 테러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북을 또다시 걸고 든 것은 어처구니없고 가소로운 짓입니다.

미국은 테러에 대해 감히 말할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테러왕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가장 횡포하고 악랄한 테러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악랄성은 군사테러를 통해 잘알 수 있습니다.

83년 그레나다에 대한 무력침공, 86년 리비아에 대한 공중폭격, 89년 파나마에 대한 공격작전 등은 그 사례의 일부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테러수법의 다른 하나는 파괴, 전복, 암살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후 42년동안에만도 백여차례의 군사정변과 수많은 전복, 파괴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76년 쿠바여객기를 폭파한 것도, 85년 이집트여객기를 납치한 것도 미국의 테러분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은 모잠비크대통령이었던 마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미국의 종합적인 테러수법은 이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6.25북침전쟁도발은 미국의 국가테러전략, 군사테러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후 미제국주의자들은 북에 대한 테러행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미국신문 《워커즈 월드》는 《진짜 테러분자들은 이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다》고 폭로했으며 미국 《코리아협회》회장인 전 《한국》주재 미국대사였던 도날드 그레그는 《이북을 《불량국가》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북을 걸고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딴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북의 높은 권위를 허물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입니다.

새 세기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이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정치로 이북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마련되고 이북민중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행정부는 대북압살책동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면서 이북에 테러지원국모자를 또다시 씌우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노리는 또하나의 목적은 새로운 국가테러로 북을 압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북에게는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북은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리석은 망상을 버리고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기 전에 이북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즉시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0일

고려호텔 44층의 원형식당에서의 《무기거래》보도는 날조

얼마전 미국신문 《워싱톤 타임스》에는 런던 《데일리 텔레그라프》지 기자 맥클로이가 쓴 《평양에서 활개치는 위스키와 무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평양의 고려호텔 44층 원형식당이 《무기거래상인들의 집합장소로서 중동과 아프리카나라 고객들로 차넘치고 있다》는 등 얼토당토 않은 자료들로 우리를 헐뜯으려는 정치적의도가 반영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명백히 할것은 맥클로이의 기사가 미국과 영국의 불순세력들의 정치적주문에 따라 씌여 진 허황하기 그지없는 날조된 기사라는것이다.

알아 본데 의하면 맥클로이는 지난 3월 《아리랑》공연고찰단 방문시 우리 나라에 처음 왔으며 보통강려관에 체류하면서 고려호텔에는 가본적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그가 직업적인 정탐배로 비법적인 활동을 벌리지 않았다면 고려호텔 44층의 원형식당에서 어떤 국적의 사람들이 무슨 화제로 이야기를 벌리고 있다는 식의 보도기사를 엮어 낼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이다.

공식적인 언론사의 기자가 직접 취재확인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하여 사실처럼 글을 쓴다는것은 언론의 초보적상식도 언론인의 직업륜리에도 어긋나는 패륜패덕행위나 다름 없다.

더우기 문제시되는것은 세계최대의 무기장사군이며 대량살륙무기의 전파자인 미국의 언론이 이렇게 날조된 여론을 진실처럼 류포시키고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이번의 허위보도사건이 조미관계진전을 달가와 하지 않는 불순세력들의 조작극이며 여기에 미국과 영국의 일부 언론기관이 불명예스럽게도 가담하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이 《평양에서 활개치는 위스키와 무기》라는 날조기사를 람발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에게 이른바 《무기장사군》의 감투를 씌워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며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려는데 있다.

미국과 영국의 불순세력들은 진실을 외곡하는 여론전, 허위적인 날조극으로써는 아무것도 얻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2002/05/20 조선중앙통신 논평

5.18시민법정, 전남도청에서 열려

광주학살의 주범인 미국의 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심판하는 5.18시민법정이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5.18관련단체회원들과 인권단체대표들, 시민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법정은 5.18시민법정헌장에 따라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혐의로 1980년 당시 미국대통령, 주한미대사,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 고위관료 8명을 피고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민법정에서 검사단은 기소장을 통해 《한국민》의 민주화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신군부와 뜻을 같이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들과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광주학살의 진실을 은폐한 미국을 기소한다면서 민족자존을 회복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18전문연구가, 희생자유가족 그리고 당시 미국인 공수부대원 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증언에서 미군이 광주사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폭동진압훈련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참가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80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포천군 미공군기지에서 공병대상사로 근무했던 엘론 바필드여성은 5.18시민법정에 보낸 비디오테이프와 편지에서 광주항쟁이 시작되자 주한미군 4만여명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폭동진압훈련도 받았다면서 광주의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미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다섯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민법정에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0일

≪친북좌익세력명단≫발표는 반민족반통일 범죄행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초점, 오늘 이 시간에는 극우익수구세력이 친북좌익세력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방송국 윤정원씨와 나누는 얘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최근 극우익수구세력이 친북좌익세력명단을 작성해 발표하려고 책동해 국민들의 커다란 분격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친북좌익세력명단이라는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패당들이 그것을 만들어 발표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부터 얘기됐으면 합니다.

윤정원 : 지금 극우익수구세력이 만들어 발표하려고 하는 이른바 친북좌익세력명단이란 한마디로 반미자주화를 지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연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요. 이자들은 이같은 통일애국인사들의 반미자주통일투쟁을 범죄시하면서 친미반통일적인 복작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거죠. 그리고 친북좌익세력명단을 만들려고 하는 패당들을 보면 월남참전전우회, 공수특전동지회, 전쟁방지국민협의회, **회,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 등 철저한 친미반공반북단체들입니다. 이 패당들이 지난 시기 벌인 사대매국행위와 반통일책동에 대해서 구태여 까밝히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사회자 : 그런데 극우익수구세력이 무엇때문에 친북좌익세력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려고 하는가 하는거예요. 말하자면 그 진의도가 뭔가 하는 겁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광복회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은 지난 2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의 일치한 요구에 따라 70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마땅해 하던 위에서 열거한 친미반통일수구세력은 그에 대응해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오는 8월 15일에 1차 명단을 발표하려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국민들속에서 높아가고 있는 민족자주화와 민족대단결, 반미친북성향을 어떻게하나 차단을 하고 국민들속에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하려는데 있는거죠. 여기에 그 범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자들은 지금 반통일어용매문지인 ≪월간조선≫ 등에 광고를 내는 등 여러가지로 책동을 해서 국민들을 더욱 분격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자 :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추진위원회 본부장이라고 하는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의 이름으로 ≪월간조선≫ 4월호에 낸 광고를 보면 이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러한 명단을 만들어 공개하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하는 걸 더욱 잘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자들이 ≪월간조선≫에 낸 광고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까밝혀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그들이 ≪월간조선≫ 4월호에 낸

광고에서 저들이 작성공개하려고 하는 반미친북세력범주에 속하는 대상을 모두 네가지로 정했어요. 그 가운데서 몇가지만 보면 우선 친북좌익세력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친북과 친공으로써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려는 자가 속한다는 거죠. 얼마나 허망하고 가소롭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이란게 어떤 겁니까. 그건 한마디로 미국의 식민지인 이땅이 마치 자주독립국가인 것처럼 미화분식하기 위한 반민족반통일반민주 문서잖아요. 사실 지금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현상을 바로 보는 사람들치고 현행 헌법을 명실공히 자주독립국가의 헌법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애당초 그 헌법을 만든 것부터가 미국놈들의 지휘하에 이땅의 친미사대매국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매국배족적이고 반민족반통일적인 헌법을 누가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극우익수구패당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죄시하는 것도 그래요. 이자들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라는게 어떤 겁니까. 그건 한줌도 못되는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 강자가 약자를 맘대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예요. 시장경제질서라는 것도 바로 서구 자본주의나라 시민들까지 나쁘다며 종말을 고했다고 하는 미국식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경제가 만성적인 위기를 겪고 불황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된게 바로 경제가 미국 등 외국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된데다 모순투성이인 미국식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예속에서의 탈피, 현 경제타개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 극우익수구패당들은 정당하고 애국애족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덮어놓고 반미친북을 한다면서 범죄시하는거예요.

사회자 :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하고 가소로운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자들은 ≪월간조선≫ 4월호에 낸 광고에서 또한 친북좌익세력에는 국군의 역사적 역할을 부정하기 위해 국군과 미군의 행위만을 문제삼아 비방중동하는 자라고 썼는데요. 아시다시피 국군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애당초 미국놈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북침전쟁 그리고 대아시아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해 저들이 직접 만들고 무장시켜온 용병이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그후 국군이 걸어온 범죄적 행적이 뚜렷이 보여줘요. 6.25전쟁과 월남파병, 5.18광주사태 등을 통해 내외 국민들은 국군이란 바로 미국의 용병이고 반민족반통일반민중적인 무장력이라는 것, 이걸 철저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한미군으로 말하면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무력으로 뒷받침하며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강점군, 침략군이예요. 그들은 북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 민중과 겨레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덮씌우려 하고 있어요. 그뿐아니라 미군을 이 땅을 강점하고 살인과 약탈, 강간과 폭행 등 온갖 치떨리는 만행만을 자행하면서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 항시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치고 미군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극우익수구패당들은 당치않게 국군과 미군의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문제시하면서 이런 애국자들을 지명, 공개해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찌 분격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자 : 그리고 우익수구패당들은 북의 정권에 의한 인권탄압, 국군포로, 납북자억류, 종교탄압 등에 대해 침묵하면서 ≪한국≫과 미국만을 공격하는 자들도 친북좌익세력에 속한다고 강조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북이 민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써 민주,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고 종교활동의 자유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민중이 이북을 동경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거죠. 특히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이북과 공조하고 동족끼리 손을 잡아야 통일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연공연북은 애국이고 통일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극우익수구세력은 저들과 미국을 반대하는 것을 범죄시하면서 친일적이고 친미반북을 하라고 떠들어대니 어디 될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회자 : 우리는 극우익세력이 낸 광고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는 친북좌익세력명단 작성공개책동이 얼마나 부당하고 반통일적인가를 잘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범죄적 책동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관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나선 우리 민중의 애국적 진출을 가로막고 이 땅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나라의 분열을 지속시키기 위한 반민족반통일적 범죄행위로 된다는 걸 똑똑히 새겨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계 애국민중들이 이자들의 범죄적 책동에 분격하면서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놀이를 그만두고 6.15공동선언이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일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극우익수구세력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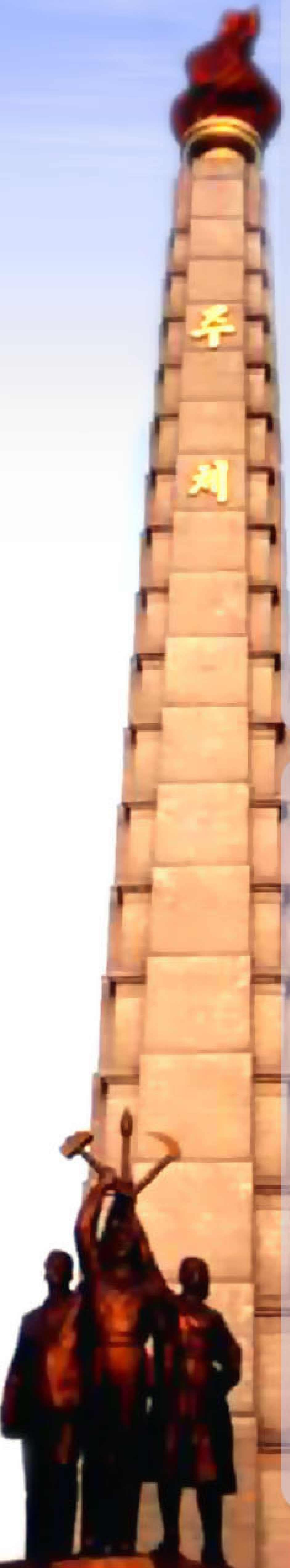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9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8)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3)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 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갈 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삼천리 강토 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4.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자

동지들!

총결기간 국제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세계의 면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민족적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 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였으며 세계의 수많은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전진하는 과정에 쁠럭불가담운동이 새로운 단계에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적 범위를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공인된 활동 원칙을 가진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 정세발전과 국제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으며 세계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 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반제자주력량이 장성 강화된 반면에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세계적 판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력력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종국적으로 청산되여 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며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연료위기, 원료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은 생산의 침체와 감퇴, 통화 팽창과 실업의 증대로 하여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본주의 세계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전횡을 일삼던 미제국주의자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로부터 고립, 배격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도 독점권과 지휘권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총결기간 국제정세발전의 전 과정은 우리 시대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 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 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과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 추세입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대외정책을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 세력들을 반대하고 세계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국제 로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올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의하여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 인민들 속에 ≪주체의 조국≫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높이 칭송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여 나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총결기간 66개의 나라와 새로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경제 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떳떳한 자리를 차지하고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세계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 운동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전례없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어디서나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주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력사의 흐름과 함께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고 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지배 세력 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날로 앙양되고 있는 반면에 지배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렬강들의 침략과 쟁탈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역량, 반제자주세력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되는 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들은 민족적 독립과 새사회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정의의 해방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공공연히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배세력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켜 자기들의 지배권 안에 끌어넣기 위한 쟁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 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하여 교묘한 암투와 파렴치한 싸움을 치렬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 보호≫요, ≪인권 보장≫이요 하면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 요충지들에 침략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 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 있으며 ≪협조≫와 ≪보호≫의 간판 밑에 이 지역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 쥐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렬강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렬강들의 책동에 의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련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국제긴장 상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와 책동으로 말미암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 오늘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며 주요자원지대와 군사 전략적 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한 지배세력들의 쟁탈전으로 말미암아 새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조선인민은 평화애호적인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평화롭게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6. 밀림속의 병기창(1)

나는 마촌에 있을 때 병기창에 자주 다녔다. 병기창이란 병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창≫은 ≪공장≫의 중국식 이름이다. 우리는 그 당시 병기창을 소박하게 철공소라고 불렀다. 이런 철공소들은 간도의 어느 현에나 다 있었다.

마촌병기창 또는 소왕청봉기창이라고도 부른 이 철공소의 초기 수준은 조직에서 파견된 한두 명을 노력이 화독에 숯불을 피워놓고 풀무를 당기면서 창이나 칼과 같은 소소한 무기를 벼려내는 정도였다.

마촌작전 직전에 철공소에 가보았더니 직원이 자그만치 7~8명이나 되었다. 그때의 철공소는 구정부 양식과장으로 소환되어간 박두경의 후임으로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주관하고 있었다. 철공소 일군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오학봉, 최상문, 양도길, 강해산, 박영복, 이응만 등이다. 이 사람들 중에 철공기술을 가지고 병기창에 들어온 기술자는 강해산밖에 없었다. 그 나머지는 거의나 쇠붙이를 다루어본 경험도 없고 더욱이는 무기수리 같은 것을 해본 전적이 한 번도 없는 초학도이거나 문외한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풋내기들이 나중에는 선반도 볼반도 쎄빠도 후라이스반도 없는 촌 야장간에서 현대적 군수공장에서나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작탄도 만들고 권총, 보총과 탄알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필요한 화약까지도 척척 만들어냈다. 이것은 항일전쟁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었고 이 전쟁의 승리가 민족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만이 낳을 수 있었던 기적이었다.

한때 간도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쏘련사람들의 도움으로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였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을 인류해방의 등대로 경건하게 우러러볼 때였다. 혁명을 먼저 수행한 나라의 덕을 보려는 사상은 사람들 속에서 남에 대한 의존심을 조장시켰다. 남들에 대한 의존심, 남들의 뒷받침으로 혁명을 해보려는 지향이 민족주의자들 속에서 자본주의열강들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낳게 하였다면 공산주의자들 속에서는 쏘련에 대한 의존심을 낳는 근원으로 되었다. 우리는 그때 혁명승리의 테이프를 끊은 쏘련공산주의자들이 후진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박두경

그런데 쏘련측에서는 그 청원에 아무런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청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해결해주지 못하겠다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통지도 없었다. 우리가 자력갱생을 해야겠다고 강하게 결심한 것이 그때였다. 쏘련사람들의 침묵은 우리고 하여금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것, 혁명을 추동하는 데서 결정적인 것은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 것이며 남들의 원조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병기창사업을 특별히 중시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박두경이 창장으로 일할 때 우리는 모루, 멍치, 집게, 메, 풍구, 줄칼, 작공기 등의 철공도구들을 주어 병기창을 꾸리게 하였다.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병기창 일군들은 파손된 무기들을 수리 재생하거나 새로운 무기들을 생산하여 유격대와 반군사조직들에 공급해주었다.

병기창이 생산한 무기 가운데서 이채를 띠는 것은 파손된 퉁포나 38식보총 총신을 잘라서 외방으로 쏘게 만든 단발권총이었다. 이런 권총은 군대에 주지 않고 자위대원들이나 소년선봉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어랑촌유격대에서 만들어낸 외알배기 권총은 정치공작원들에게 주로 공급되었는데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병기창 사람들은 38식보총 탄피들에서 뇌관을 뽑은 다음 새 뇌관을 만들어 끼우고 화약을 장약하는 방법으로 탄약도 재생하였다.

그런데 병기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원료가운데서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면서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화약이었다.

처음에 유격구의 병기창들에서는 광산노동자들과 지하공작원들이 보내주는 화약으로 작탄도 만들고 탄알도 재생하였다. 그러나 이 구입방법은 상시적인 위험을 동반하였고 광산들에 모처럼 꾸려놓은 혁명조직들을 노출시킬 우려가 많았다. 실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약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용수평늪사건이다.

용수평은 팔도구광산 근처에 있는 동네이다. 최현의 전우이며 부인이었던 김철호가 바로 이 마을에서 자라나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동구 앞에는 수심이 깊고 갈대가 무성한 늪이 있었다. 용수평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이 고장 농민들의 생명수였던 용수평늪이 하루아침 사이에 피바다로 된 참변이 일어났다. 일본헌병대 야수들이 유격근거지에 화약을 반입한 팔도구광산 노동자 20여 명을 색출하여 이 못가에서 무참히 학살하였던 것이다.

소왕청유격구의 병기창(모형)

이 사건은 유격근거지의 지도자들과 병기부문 일군들로 하여금 광산조직들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화약을 해결하던 종전을 방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작탄과 총탄을 만들 때 쓰던 그 한 그램 한 그램의 화약은 그대로 다 투사들이 뿌린 피였고 살점이었으며 그 모든 것의 결정체였다.

우리는 화약도 자체로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결심을 사상누각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사람이 각오만 하면 못해낼 것이 없다, 조상들이 만든 화약을 그 후손들이 왜 못 만들겠는가 하는 뱃심을 가지고 화약제조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진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 화약의 기본원료인 염초를 민간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염초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보는 것이었다. 햇빛이 쨍쨍 내리쪼이는 어느 날 나는 병기창 성원들을 데리고 재와 퇴비가 쌓여 있는 이치백 노인의 집마당으로 갔다. 두엄더미 주변에 하얗게 쌓여 있는 흰 소금같은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염초라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병기창 동무들은 손에 대통을 쥐고도 내 대통, 내 대통하는 할아버지 격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바탕 유쾌하게 웃어댔다.

변소자리나 외양간, 마굿간에서 나간 두엄더미 밑바닥 흙에서도 염초를 얻어낼 수 있었다.

고려시기에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하여 국방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가 만들어낸 화포는 곧 함선에 설치되었다. 고려의 수군은 그 화포로 진포해전에서 왜구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그가 화약을 제조할 때에 사용한 염초도 역시 집 주변에서 얻은 재나 먼지를 정제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고려 시기의 화약이 최무선의 발명이 아니고 그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배운 제조법을 도입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그런 화약을 발명해낼 만한 이론기술적 토대가 우리 나라에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공정한 평가라고 보지 않았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삼국시기에 신라에서는 벌써 화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무슨 발명을 했다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두뇌가 비상해!≫하고 감탄하면서도 조선사람이 무슨 발명을 했다고 하면 ≪그게 정말은 정말이야?≫하고 고개부터 갸웃거리는 사대주의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병기창 사람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염초를 얻어냈다. 염초를 뽑아낼 때 용기들로는 밑굽이 뚫린 토기시루나 양철시루, 오지항아리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이런 용기들에 마굿간, 변소, 두엄더미 바닥에서 긁어온 흙을 다져넣고 물을 부었다. 그때 구멍으로 떨어져내리는 물을 그릇에 받아두었다가 가마에 넣고 달이면 하얀 결정체가 되는데 이것이 염초였다.

그때 생기는 윗층의 결정체를 가로발이라고 하였고 밑층의 결정체를 선발이라고 하였다. 선발은 곧게 나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보총, 권총 탄알들에 장약되었고 가로발은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작탄제작에 많이 사용하였다.

화약을 만들 때에 소용되는 원자재는 군중이 동원되어 다 해결하였다. 필수원료인 유황은 경비전화선 애자에서 많이 긁어다가 해결하였다. 화약에는 알콜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그 대신 빼주를 썼다.

우리는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실험을 거듭하여 끝내 이상적인 배합비율을 얻어냈다.

그때 화약제조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 손원금이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원래 나는 손원금이와는 별로 인연도 없고 서로 만나서 통성을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원금의 경력이며 활동내용을 십년지기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었다.

손원금

우리에게 손원금의 투쟁사적을 처음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 박영순이였다. 작탄강습에 출연하려고 마촌에 온 그는 나와 한방에 누워 뒹굴면서 며칠 동안 신변잡사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 그 말 가운데는 손원금의 이름도 이따금씩 껴묻어 나왔다. 열마디에 한마디 정도씩 드문드문 튀어나오는 이름이였지만 거기에는 박영순의 각별한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도 손원금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호기심을 가지고 듣곤 하였다. 박영순은 그의 친근한 전우이자 입당 보증인이였다.

사람은 업적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고 재능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으며 사건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다. 1932년 당시의 손원금은 경찰서 탈출 사건으로 간도지방의 혁명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였다. 약장사로 가장한 그는 바이올린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통신연락 임무를 수행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고문에 만신창이 된 몸을 끌고 구정물이 허리를 치는 하수도 구멍으로 빠져나와 옹근 하루낮을 강물속에서 보냈다. 경비가 철통같은 적의 소굴을 무사히 탈출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하루해를 꼬박 물속에서 보냈다는 것도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였다.

그후 그는 유격대에도 입대하고 공산당에도 입당하였다. 손원금은 이때부터 성실한 노력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금곡촌의 신성덕 수리바윗골 장대는 박영순이 책임진 화룡병기창이 자리잡고 있던 곳이다. 이 병기창 일군들이 처음으로 만든 작탄을 소리폭탄이라고 하였다. 소리폭탄은 그후 고추폭탄으로 발전하였다가 연길폭탄이라는 위력한 작탄으로 완성되었다.

연길폭탄을 제작하는 데 많은 자재가 들었다. 이 자재를 병기창 성원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면 무수한 노고를 바쳐야 했다. 손원금은 언제나 이 노고의 앞장에서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갔다.

≪한번은 소리폭탄은 만들다가 큰 난관에 봉착한 일이 있습니다. 장약함을 만들 종이와 천이 거덜났거든요. 모두가 방도를 찾느라고 머리를 썩였지요. 그런데 원금 동무는 어느새 마을로 뛰어내려가 자기 집 문창호지와 하나밖에 없는 이불을 뜯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재밤중에 헐떡거리며 병기창으로 돌아온 그를 보니 어쩐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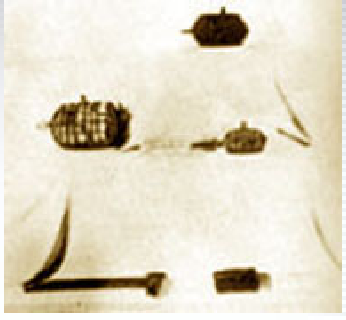
이것이 박영순이 마촌에서 나에게 한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참으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혁명가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받아안은 감흥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박영순은 말을 이어갔다.

≪원금동무는 무슨 일에서나 앞장에 서곤 했습니다. 철사가 모자라서 작탄 제작이 중단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앞장에 선 것은 손원금이였습니다. 그가 수십 리밖에 있는 남양평에 가서 300미터나 되는 전화선을 끊어왔지요. 유황도 무쇠조각도 양철판도 그 사람이 구해왔습니다.≫



연길폭탄과 그 제작도구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치는 어느날 밤 양철판과 무쇠를 한짐 지고 병기창으로 돌아온 손원금의 뒤로는 주소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생면부지의 할머니 한 분이 무쇠가마를 이고 따라들어왔다.

늙은이의 돌발적인 출현은 일군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원금이, 웬일인가? 시베리아 바람에 살점이 막 떨어져나갈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 밤중에 노인님을 모시고 왔나. 사람두 참…≫

박영순이 할머니의 머리에서 무쇠가마를 들어내리며 하는 말이였다.

손원금은 등짐을 벗어내치고 의미있게 도리를 흔들었다.

≪내가 모시고 온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청해서 따라왔습니다.≫

박영순은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어떻게 되어 저 동무를 따라오셨습니까?≫

≪저 젊은이하구 난 구면이라우. 전에 내풍동에서 살때부터 낯을 익혔수다. 우리 며느리가 중병이 들어 골골하면서도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있을 때 깽깽이를 들고 약장사를 하던 저 젊은이가 글쎄 돈 한 푼 안 받고 약두 지어다 주고 쌀도 사다주지 않았겠수.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살아났수다. 신세를 갚지 못해 알알했는데 오늘 아침 저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 왔더구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쇠가 있으면 내라고 하길래 옳지 됐다, 이제는 신세를 갚을 길이 틔였다하고 무릎을 치지 않았겠수. 이건 우리 집 가마 중에서 제일 큰 게라우. 에구, 신세갚음이 되기나 되겠는지…≫

할머니는 미씸쩍은 시선으로 화독앞에 놓인 가마를 굽어보았다.

≪할머니, 지성은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마사진 가마만 받지 새 가마는 받지 않습니다. 이 가마는 도로 가져다 쓰십시오.≫

박영순이 송구스럽게 하는 말이였다.

할머니는 그 말에 왈칵 짜증을 내였다.

≪그런 말은 하지두 마우. 일본놈들이 내 아들을 둘이나 불에 태워 죽였는데 이까짓 무쇠덩지가 무얼 그렇게 아깝겠수!≫

병기창 일군들은 그 이상 할머니를 설복하지 않았다.

나는 박영순의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화룡땅으로 달려가 손원금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를 매혹시킨 손원금의 인간상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강쇠같은 자력갱생의 정신이였다.

나는 흥분된 심정으로 박영순에게 말했다.

≪박동무의 이번 걸음에 손동무도 같이 올 걸 그랬습니다. 그 동무의 경험이 아주 교훈적입니다. 이 훌륭한 경험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면 모두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박동무가 손동무를 대변하여 다 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촌 작탄강습을 계기로 손원금은 전 동만이 다 아는 인물로 되였다.

박영순이 강습을 끝내고 마천을 떠날 때 나는 이런 부탁을 하였다.

≪화룡에 돌아가면 손원금동무에게 그의 경험이 강습참가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 주시오. 언젠인가는 우리들이 서로 만나 정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전해 주시오.≫

그러나 나와 손원금의 상봉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작업도중 폭발사고로 두 눈을 잃고 장님이 되는 불행까지 당했다.

화약을 제조하는 과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작탄이나 총탄에 화약을 재우는 일이였다. 박두경, 박영순, 강위룡은 다같이 화약을 제조하다가 중상을 당한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곤경을 겪으면서도 작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손원금이도 실명의 쓰라린 아픔속에서 낙심하거나 비관에 잠기지 않고 ≪동무들, 슬퍼마라.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나에게는 심장이 남아있지 않은가.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무들을 위로하였다. 그리고는 손더듬으로 쇠줄을 자르고 작탄을 조립하면서 인터내셔널의 노래를 불렀다.

한많은 세월의 바람받이에 아버지를 묻고 형을 묻고 누이를 묻고… 이제는 또 자신의 광명마저 잃은 손원금! 그는 아직 반생에 이르지도 못한 젊은 나이였다.

손원금은 유격구가 해산되자 전우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부대를 떠나 금곡촌으로 내려갔다. 그의 귀에는 날마다 유격대를 헐뜯고 공산당을 헐뜯는 염불소리가 들려왔다.

≪유격대는 산에서 전멸되였다.≫

≪근거지 사람들도 다 굶어 죽었다.≫

≪처창즈에 가보라. 백골뿐이다.≫

≪공산당의 정치는 망하는 정치다. 공산당을 따라다녀대야 먹을 알이 쥐뿔도 없다.≫

손원금의 혈관속에서는 분노의 피가 끓어번졌다. 그는 집집을 찾아다니며 열변을 토하였다.

≪아니다. 유격대는 살아있다. 살아서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갔다. 지금 남북만 도처에서 적들을 치고 있다. 몇십명으로 출발했던 유격대오가 지금은 대포와 기관총을 가진 수백 수천 명의 대오로 자라났다. 동포들, 형제들! 적들의 선전에 속지말고 인민혁명군을 더 잘 원호하자. 항일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고 끝날 것이다!≫

손원금의 발자욱은 금곡촌의 범위를 벗어나 수백 리 밖에 있는 연길과 용정에서 찍혀갔다. 이전날처럼 바이올린을 둘러메고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더듬더듬 걸어가는 이 ≪소경걸인≫을 군경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노상에서 보천보 전투소식을 들은 그는 연길의 거리거리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목메인 목소리로 외쳤다.

≪조선동포 여러분, 6월 4일 **김일성**장군이 부대를 거느리고 보천보를 습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압록강을 건너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진출하였다. 혁명군의 위력앞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제의 멸망은 확정적이다.≫

그의 불같은 연설에 연길시는 죽가마처럼 끓어번졌다. 그러나 그 대가로 손원금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화형을 당하였다.

≪여러분, 나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산천이 환히 보입니다. 승리의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조선혁명 만세!≫

이것은 그가 사형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였다.

당년 25살의 자력갱생의 선구자 손원금은 이렇게 한생을 마쳤다.

박영순은 손원금을 추억할 때마다 ≪원금이는 장가도 못 가보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라고 하곤 하였다.

만일 손원금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면 후대들 앞에서 자력갱생을 두고 좋은 말을 많이 할 것이다. 그의 경력 자체가 자력갱생의 산 교과서로 되고 있을 것이다.

(내일 계속)

아동단원들의 친근한 지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어머님이신 빨치산여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 아동단원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성으로 그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아동단원들을 위해 베푸신 그 정성은 그들의 운명과 조국의 앞날을 연결시킨 혁명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이였어요. 아동단원들의 친근한 보호자이셨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소개드립니다. 임현아씨.

아동단 연예대를 데리고 항일유격대를 찾으시는 **김정숙**동지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주체 20(1931)년 봄, 두만강연안일대에서 아동단원들을 **김일성**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근위대, 혁명의 믿음직한 후대로 키우시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아동단원들을 **김일성**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주체 22(1933)년 봄,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기상나팔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을 뛰쳐나와 조기운동을 하려고 하는 아동단원들을 돌아보시며 오늘아침은 뒷산에 올라가 해돋이를 구경하자고 하셨어요. 아동단원들은 환성을 울리며 뒷산으로 치달아 올라 해돋이를 구경했습니다. 늘 봐오던 해돋이였지만 높은 산정에서 보는 일출은 너무도 장쾌해서 아동단원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답니다. 그러는 아동단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두 태양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한 아동단원은 태양은 밝고 따뜻한 빛을 준다고 했고 다른 아동단원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동단원은 비가 온뒤 고운 무지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동단원들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말 태양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혜택을 안겨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태양의 고마움에 대해서도 알아야하지만 **김일성**장군님의 은혜로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상만물이 태양이 없이는 못사는 것처럼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품에서 *****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찬란히 태양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태양과 같은 분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다, 우리들에게 나라찾는 투쟁의 길을 밝혀 주시고 우리들을 반갑게 품에 안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모두의 태양이시다, 아동단원동지들을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장군님을 따르는 참된 전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은 아동단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늘 아동단원들을 평가하시어 그들을 교양하시고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저녁마다 가지는 모임때마다 아동단원들의 생활과 임무수행정형을 어김없이 총화해주셨고 잘된점과 잘못된점을 지적해주고 잘못된점을 제때에 고쳐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언제나 얼굴에 묻은 때를 거울을 보고 닦듯이 자기의 생활을 ***다고 하시면서 비판을 싫어하고 대중앞에서 자신의 결함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참된 아동단원이 아니며, 혁명가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혁명의 후대들인 아동단원들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굳세게 키워나가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세심한 지도와 가르치심으로 아동단원들은 배낭속에 언제나 미시가루가 든 양식주머니와 소금, 내의, 모포, 옻나무껍질에 싼 딱성냥 공책, 연필등을 가지고 다녔어요. 배낭뒤에는 곤봉을 두개씩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아동단원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 부닥쳐도 굳세게 살며 싸워나갈수 있는 전투의 무기였으며 생활도구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토벌대놈들이 달려들면 ***아동단원들을 이끄시고 유격대원들을 도와 힘껏 싸우시곤 하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친부모도 주지못할 뜨거운 사랑을 주셨으니 정녕 이 나날에 아동단원들을 위해서 바치신 그 사랑과 은정은 뭇사람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끼니를 거르시면서도 먹을것이 좀 생기면 항시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린 아동단원들에게 나누어주셨고 자신께서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시고 적통치구역 마을들에 나가셨다 돌아오시면 아무리 ***도 아동단합숙부터 들리시어 그들이 어디 다쳤거나 앓는 아이는 없는지 알아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곤 하셨답니다.

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께서 아동단원들에게 베푸신 그 정성은 그들의 운명과 조국의 앞날을 연결시킨 혁명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의 품, 그들 모두를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시려는 가장 고귀한 은정이였습니다. 이 나날 **김정숙**어머님께서 아동단원들의 가슴속에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투지를 키워주시기 위해 바치신 노고는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정녕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적인 교양과 세심한 보살피심으로 인해서 아동단원들은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소년전사로 미덥게 성장할수 있었습니다.

이름대신 고운 그림을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인 탁아소들에 들어서면 옷장에 그려 진 사과, 복숭아, 비행기 등 고운 그림들을 보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그림이 아니다. 여기에는 조국의 미래를 꽃 피워 가시는 길에서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남기신 또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래를 사랑하는것은 혁명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입니다.≫

광복후 어느 날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3.8탁아소(오늘의 **김정숙**탁아소)를 찾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귀여운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 주시여 볼도 다독여 주시면서 탁아소의 운영정형을 일일이 알아 보시였다. 그러시면서 탁아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것을 보시면 장군님께서도 매우 기뻐 하실것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 애기방이며 취사장 등 여러 시설들을 돌아 보시며 탈의실의 옷장과 신발장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옷장과 신발장의 문들마다에 붙어 있는 어린이들의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 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옷장과 신발장에 이름을 써붙이면 글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장을 알아 볼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이름을 써붙이는것보다 그림을 그려 붙이면 아이들이 자기것을 제꺽 알아 볼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아무개 어린이 옷장에는 사과를 그려 붙이고 아무개 어린이의 신발장에는 비행기를 그려 붙이고 그것을 누구누구의것이라고 알려만 주면 어린이들이 자기의것을 제꺽 알아 볼수 있을것이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세워 진 3.8탁아소와 더불어 온 나라 탁아소들마다에 갖추어 진 어린이들의 옷장마다에는 이름대신에 갖가지 고운 그림들이 그려 지게 되였다.

오늘 이 땅에 수풀처럼 일떠선 탁아소들마다에는 백두산녀장군의 이런 세심한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 있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더불어 우리 후대들은 백두산녀장군의 사랑의 이야기를 영원히 길이길이 전해 갈것이다.

오성산

노동신문 정론 - 주체19, 5월 21일

오성산,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이 숭엄히 어려 있고 우리 장군님 결사수호의 각오 안고 헤쳐 오신 선군혈전사가 력력히 새겨 져 있어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도 높이 솟아 빛나는 오성산,

우리 장군님 펼쳐 주신 선군정치가 얼마나 위대한 백전필승의 보검이며 장군님 오늘도 쉬임없이 이어 가시는 선군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 정의의 진군길인가를 가슴깊이 깨우쳐 주는 성스러운 메부리,

선군정치의 상징으로 빛나는 이 력사의 봉우리에서 우리는 한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터쳐 웨친다.

사람들이여,

위대한 선군정치를 알고 위대한 선군장군을 알려거든 여기 오성산에 오르라.

이 산정에 오르면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 가시는 선군령도의 길을 따라 행복의 만리가 오고 영원한 승리가 온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리니,

오르라, 오성산으로 그리고 영원히 오성산을 안고 살라.

(1)

자욱마다 피가 고이는 길이였다. 총포탄은 날지 않았어도 죽음의 파편들이 옷자락을 스치는 사생결단의 길이였다.

오성산에로의 강행군, 우리 장군님의 오성산현지시찰길은 그렇게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혁명사에 새겨 졌다.

그래서 총 잡은 병사들 때없이 눈물속에 오성산을 그려 보는것인가. 정녕 그래서 우리 장군님 그리도 오성산을 잊지 못해 하시며 자주 추억하시는것인가.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 오시였을 때에도, 문필가들을 만나주실 때에도 외우고 또 외우신 그 말씀,

우리 혁명의 오늘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그처럼 어려웠던 때 오성산에 오르던 일을 잊을수가 없다고, 오성산에 한번 올라 가보면 우리의 선군정치가 얼마나 간고한 길을 걸어 왔는가를 알게 될것이라고 그리도 절절히 외우시던 그 추억에 젖은 음성이여,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선군정치를 알자면 오성산에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는가.

여기가 바로 최고사령부와 제일 멀리 떨어 져 있는 최전방의 마지막고지여서인가, 아니면 이 산정에 오르시던 그날의 고행이 너무도 잊을수 없어서인가.

아, 오성산,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 쩌릿해 지는 오성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의지우에 솟아 오른 선군정치의 증견자이다.

오성산은 선군정치의 장엄한 포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머리우에 멸적의 불벼락을 안기고 력사의 기적을 안아 오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화산처럼 분출된 력사의 봉우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어찌하여 한해에 두번씩이나 오성산에 오르시였는지, 자욱자욱 피와 고뇌가 스민 그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이 어떤 절정에 올라 섰는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여, 력사의 그날 오성산으로 오르던 최고사령부 야전승용차의 차창가에 삼가 마음 세워 보시라. 그러면 승용차가 몸부림치며 한치한치 톺아야 했던 그 가파로운 길, 삶과 죽음이 맞부어 싸운 그 사생결단의 길을 우리 장군님 어떤 의지를 안고 오르시였는지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될것이다.

한치만 잘못 밟으면 천길벼랑, 한줄기 바람이 불어 와도 금시 와르르 쏟아 질듯 위태롭게 머리우에 드리운 바위돌들, 게다가 억수로 퍼붓는 장마비와 차창가에 부딪치는 컴컴한 먹장구름, 숨 막히는 저기압 선군혁명의 앞길에 가로 놓인 만난시련과도 같이 안겨 오는 이 생사혈전의 길을 오르실 때 우리 장군님의 심중이 어떠했으랴.

하늘을 꽉 채운 시커먼 비구름처럼 바로 그 시각에도 지척에선 적들의 발광적인 ≪림팩98≫불구름이 타래쳐 오고 있었으며 ≪칼빈손≫호를 비롯한 침략의 해적선들이 바다를 메우고 있었다. 방금 지나오신 공장과 마을들에선 연기가 오르지 않았고 큰물이 휩쓴 곡식밭들엔 피같이 진한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 마치 자연까지도 횡포를 부리며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야합하여 선군의 길을 막아 서는것만 같은 준엄한 시기였다.

다박솔초소에서 첫 걸음을 땐 때로부터 여러해, 이 나날에 헤쳐 온 선군령도의 길이 걸음걸음 험로역경이였지만 이때야말로 우리 혁명이 1930년대의 천교령밑에 이르렀던 때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시련기였다.

무릇 새것의 탄생, 위대한 기적의 창조는 모진 진통을 거쳐서만 이루어 진다고 하지만 력사에 전무후무한 선군정치의 출현에 아연실색하였던 미제와 온갖 반혁명세력은 우리의 선군정치를 요람기에 짓밟아 보려고 문자그대로 단말마적인 총 공격을 가해 오고 있었던것이다.

이 반혁명의 역풍을 더욱 강력한 선군정치의 열풍으로 불 태워 버리시려, 적들의 ≪강경≫에 초고압선군강경으로 맞받아 공격하는 이것이 민족을 살리고 붉은기를 수호하는 길이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전방에도 최전방 오성산으로 오르신것이 아니였던가.

허나 선군정치실현의 그 길이 목숨을 내대는 결사의 의지를 지니지 않고서는 단 한걸음도 내짚을수 없는 혈전의 길임을 우리 다는 모르고 있었으니,

미끄러운 구배길에서 승용차가 지쳐 내리기를 그 몇번, 끝내는 칼벼랑턱 30센치메터를 사이 두고 공회전만 거듭하던 그 숨 막히는 순간이여, 우리 장군님 몸소 어깨를 들이대시고 차를 떠밀며 오르신 오성산의 전선길이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기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내리면 외투를 입고 편안하게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숭고하고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가슴 불 태우시며 오성산으로, 오성산으로 차를 떠밀며 오르시는 장군님의 모습은 진정 사생결단하고 선군혁명을 시대의 메부리로 이끌어 올리시는 백두령장의 위대한 모습이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수안보의 전선용사들을 찾아 어버이수령님 헤쳐 가신 그 력사의 길과도 같은 이 결사헌신의 혈로를 따라 우리 혁명은 승리의 령마루에 올라 섰다.

한치만 물러 서면 천길벼랑아래로 떨어져야 하고 한걸음만 후퇴하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될수 있었던 그때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깨에 떠받들려 력사의 령마루에 높이 올라 섰거니,

오성산이여, 너는 진정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백두령장의 위대한 신념우에 우뚝 솟아 오른 선군시대의 승리봉으로 천만가슴가슴에 간직된것이 아니냐.

선군정치의 메부리로 빛나는 오성산마루에 올라 저 멀리 백두산쪽을 바라보니 수령님 헤쳐 오신 만고풍상의 자욱우에 우뚝 솟아 빛나는 항일혁명의 분수령 1936년 2월의 남호두언덕이 안겨 온다. 조선혁명의 주체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고 전략적방어로부터 전략적공격에로 이행한 항일혁명의 분수령 남호두언덕이 떠오르는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오성산, 물론 여기에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무슨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신것은 아니였다. 세상에 대고 공식연설을 하신것도 아니였다.

하지만 력사는 보았다.

우리의 선군정치를 요람기에 압살하려는 제국주의무리들의 악랄한 도전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쳐갈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단호하고 담대무쌍하신 대풍모를 보았다.

-우리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들고 온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든다.

선군정치, 이것은 우리 당의 영원한 혁명전략이며 우리는 선군으로 조선혁명을 완성할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절대불변의 진리이고 과학이며 철학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선군장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 쥘것이다.

이것은 오성산에서 울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였다.

이때부터 이 땅우엔 백두산총대바람, 오성산전선바람이 더더욱 세차게 폭풍치고 제국주의의 머리우엔 무서운 불벼락이 떨어 졌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우에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절대로 면치 못할것이다.≫

오성산은 이렇게 뢰성치며 조국의 령토를 침범하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들부셨다.

피눈물을 씹어 삼키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노래로 결사의지의 도화선에 불을 달며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서 오성산에 오른 선군혁명은 대하가 되고 폭풍이 되였다.

력사의 분수령 남호두에서 뻗친 항일혁명의 대하가 보천보의 홰불을 지펴 올리고 무산지구의 총성으로 울리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새 아침에 이르렀듯이 오성산에서 뻗친 선군혁명의 거세찬 진군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력사적인 승리에로 이어졌다.

죽음에서 삶에로의 비약,

백두의 령장 따라 선군의 길을 걸었기에 우리는 죽음에서 삶에로 도약했다.

령도자가 인민을 위해 사생결단하면 고난의 천리가 행복의 만리로 바뀐다.

오성산, 바로 여기서 고난의 천리에 이어 행복의 만리가 시작되지 않았던가.

말하라, 선군시대의 표대이고 불길인 혁명적군인정신이여, 강계정신이여, 라남의 봉화여,

이 땅, 이 하늘아래 눈 부시게 일떠선 발전소언제들이여, 천지개벽한 벌들이여!

우리 장군님 오성산에서 더욱 높이 추켜 올리신 선군의 기치, 더욱 세차게 일으키신 선군정치의 열풍이 아니였다면 네 진정 그처럼 위대하고 거대하며 희한할수 있을것인가.

아, 오성산,

포성 없는 전쟁의 불바다를 진두에서 헤치신 희세의 천출명장이 생사판가리하며 이 행성우에 높이 세워 놓은 력사의 봉우리여,

너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주체시대, 선군시대의 거봉으로, 제국주의의 명줄을 내리 밟고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는 선군혁명 승리봉으로 영원히 높이 솟아 있을것이다.

(2)

오성산은 이 땅우에 펼쳐 진 혁명의 위대한 전환기를 격조높이 노래한다.

얼마나 눈 부신 기적이 여기서부터 펼쳐지고 그 얼마나 크나큰 환희가 여기서부터 터져 올랐던가.

사람들이여,

오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 가슴 벅차게 할수록 오성산길에서 돌아 오신 장군님께서 하신 그 말씀, 새로운 전환의 해를 맞으시며 하신 그날의 그 말씀이 우리 흉벽을 두드리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강행군의 지나간 한해를 감회깊이 더듬으시며 ≪우리는 가장 어렵고 간고한 시기를 극복하였습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새 우리 인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나도 정말 의지의 힘으로 극복해 왔고≫라고 하신 그 추억 깊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리도 파고 드는것은 정녕 무엇때문인가.

1998년,

선군의 년대들에 새기시는 백두령장의 선군령도자욱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찍혀 졌던 그 한해.

1996년 2만 5천여리,

1997년 근 3만리,

1998년 근 4만리,

우리 장군님의 천신만고의 로고가 겹쌓인 강행군의 그 걸음걸음은 진정 자욱자욱이 피어린 전투였다.

악을 쓰는 제국주의의 도전과 자연재해로 그처럼 간고했던 선군의 년대들에서도 가장 준엄했던 못 잊을 1998년, 만약 그때 백두령장의 선군령도의 길을 따라 력사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서지 못했다면 우리 어찌 오늘의 승리를 맞이할수 있었으랴.

그렇다. 오성산,

바로 여기서 선군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고 그 불길과 더불어 우리 혁명은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

혁명의 전환기, 앙양기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세찬 박동으로 높뛰는 심장이 더운 피를 내뿜을 때 생신한 활력을 띠는 생명유기체와도 같이 혁명도 령도자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가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피를 끓일 때 새로운 높이로 나래친다.

우리 당력사에 시련의 해로 새겨 진 1956년의 난국이 어떻게 강선에서 날아 오른 천리마의 발굽에 채워 산산이 부서졌던가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게 하는 오성산,

아, 피눈물의 대하에서 장군님, 이제부터 어떻게 단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겠는가고 비통히 울리는 그 물음에 내가 왜 단신이겠는가고, 동지들이 있는데 어찌 내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겠는가, 나는 절대로 단신이 아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다박솔총대언덕에서 선군정치를 시작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 총대혁명이 여기 오성산에 이르러 거세찬 폭풍으로 터지였으니 진정 오성산은 우리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선군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에 더더욱 세차게 굽이쳐 가게 한 최고사령부 제1야전지휘처가 아니던가.

여기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떨치신 사생결단의 선군의지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불변의 신념으로 더욱 억척같이 재워졌다.

어깨로 차를 떠밀며 기어이 오성산으로 오르신 백두령장의 그 불굴의 의지는 온 나라 장병들과 인민들의 심장에 죽음도 불사하는 힘으로 새겨 졌다. 선군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은 군대와 인민의 강철신념으로 굳어 졌고 적은 죽고 우리는 살아서 끝까지 혁명을 한다는 각오는 서슬 푸른 총창에, 수천수만의 마치와 낫과 붓끝에 더욱 강렬하게 빛발쳤다.

말하라,

오성산에서 더 굳게 다진 선군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더 빨리 이어 가신 전선길, 전선길이여,

너의 곳곳에 장군님 옮겨 오신 수백수천의 ≪오성산≫들이 키를 솟구치며 성벽처럼 일어 섰기에 붉은기수호의 전 전선에서 승리의 쾌거가 이룩된것이 아니더냐.

다박솔초소와 이 나라의 수많은 ≪오성산≫들에 휘몰아 친 선군정치의 열풍과 더불어 위대한 전환의 북소리를 높이 울린 이 경이적인 현실.

세계는 들었다.

위대한 장군의 뜻 깊은 오성산현지시찰이 있었던 그 다음해에 선군조선에서 울린 상상밖의 기적, 강성대국건설에로의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땅에서 하늘로, 극에서 극으로 뒤바뀌는 꿈 아닌 이 경이적인 현실에서 세계는 총쥔 병사들을 전렬에 내세우고 온 나라에 전선바람, 오성산바람이 불어 치게 하여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신 위대한 장군의 선군령도의 비범성, 선군정치의 특출성을 크나큰 경탄속에 실감했다.

가슴 뜨거워라,

위대한 선군령도가 ≪전화위복≫의 기적을 낳고 온 세상이 이에 찬사를 아끼지 않던 1999년 초, 마침내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을 긍지높이 언명하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공식선언이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선군정치,

세상에 정치라는 말이 생겨 수백수천년,

력사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기록되였고 그들은 제나름의 방식대로 정치를 펼치였다.

얼마나 많은 정치가, 국가통솔자들이 인민앞에, 력사앞에 자기 식의 정치무대를 펼치였는가.

뻔질나게 연탁앞에 나타나 열변을 토하며 그 무슨 ≪강령≫을 선포하고 ≪정령≫과 ≪지시≫를 하달하는 ≪탁상정치가≫, ≪웅변정치가≫들도 있고 대통령궁전이나 집무실을 맴돌며 ≪정사≫를 돌보는 ≪궁전정치인≫들도 있으며 포만의 연회석상에서 ≪정치≫를 론하는 ≪연회정치가≫들도 있다.

력사는 선군의 장검을 만능보검으로 추켜 드시고 백승을 떨치시는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통하여 비로소 가장 위대한 세계정치대원로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선군정치,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명을 위하여 령도자가 사생결단의 전선길을 걸으며 펼치시는 **김정일**장군정치이다.

그렇다. 우리는, 세계는 전선천리의 무수한 ≪오성산≫들을 활무대로 삼으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거세찬 앙양을 안아 오시며 그 어떤 반혁명의 공세도 혁명의 제1선, 화선전호속을 걸으시면서 선군의 위력으로 격파하시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보았다.

오성산은 우리의 심장속에 높이 솟았다.

불 밝은 집무실이 아니라 최전방의 마지막 고지인 오성산마루에까지 찾아 가시여 병사들에게 망국노가 되지 않겠거든 복수자의 총대를 굳게 틀어 잡아야 한다시며 신념의 억센 기둥을 세워 주시고 적의 총구가 번뜩이는 판문점과 351고지에도 나가시여 전호속에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처를 정하시고 병사들과 흙냄새도 같이 맡으시고 포연도 함께 헤치시는 우리의 장군님,

주체혁명을 더 높이 올려 세울 위대한 강령작성과 선포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불러 일으킬 시정연설과 신년사도 전선시찰로 대신하시고 조국통일대전과 강성대국건설의 거창한 작전도 적진이 지척인 최전방지휘소에서 완성하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그래서였다.

우리 눈물속에 뵙고 우리 너무도 눈에 익어 꿈에도 뵙는 백두산장군의 모습은 찬바람 몰아 치는 전선길에 계시는 모습, 전선바람 푹 배인 전투복차림의 그 숭엄한 모습뿐인것은,

그래서였다.

우리 장군님 이제는 폭신한 침대가 아닌 딴딴한 침대에 더 정들이시고 너무도 시간이 없으시여 아침식사도 건늬시는 아, 정녕 부이시면 안되는 그 습관, 그 야전식이 자신에게는 제일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병사들이 울고 인민들이 우는것은,

전선과 후방을 일행천리 종횡무진하며 펼쳐 가시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붉은기수호, 인민수호의 결사의지가 펄펄 끓는 사생결단의 정치이며 전략전술과 작전전투의 구상과 실현도 그 어떤 보좌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께서 현지에서 직접 구상, 즉시 실현해 나가시는 장군정치이다.

그것은 그 어떤 철의 장벽도 단호히 뚫고 나가며 순간의 좌절도 양보도 모르는 완강한 공격전이며 동에서 서에로, 북에서 남으로 번개치고 우뢰 우는 일격필승의 전격전이다.

그 누가 말했던가, 정치란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이라고, 령도자는 권좌에 앉아 호령하고 인민은 숨 가빼 움직이는것이 정치의 일반적흐름이라고!

허나 우리 장군님 인민을 뒤전에 세우시고 자신께선 전초선을 쉬임없이 달리시며 세월의 만고풍상을 다 헤쳐 가고 계시거니,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인민제일의 인생관을 지니신 그이는 애국도 사생결단의 애국을, 사랑도 사생결단의 인민사랑을, 증오도 사생결단의 증오를 하시는 열렬한 혁명가,

그이는 어느 한두달도 아닌, 어느 한두해도 아닌 어제도 오늘도 매일, 매 순간 인민수호의 결사전에 나서시여 제국주의와 혈전을 벌리시는 위대한 전투원,

문무를 최고의 높이에서 겸비하시고 사생결단의 신념과 의지를 최대로 굳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킬수 있는 위대한 **김정일**정치.

정녕 선군령도, 선군정치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넋이다. 위대한 열정이다. 위대한 생활이다.

그것은 자신의 피방울처럼, 살점처럼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 우리 인민에게 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붉은 심장이다.

그래서 남들은 부러워는 해도 이런 정치는 못한다.

도대체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처럼 인민에게 심장을 서슴없이 내여 줄 그런 위인, 그런 장군이 또 어데 있단 말인가.

수입할수도 없고 모방할수도 없는 위대한 선군정치는 인민의 령도자, 정의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일무이한 독점물이다.

오성산은 이 불멸의 철리를 소리높이 웨치며, 백두령장의 선군령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에로 나아가는 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더더욱 존엄높이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다.

(3)

위인은 성산을 낸고 성산은 인민의 심장속에 억센 뿌리를 내린다.

백두령장이 추켜 든 장군기치인양 최정예강군 선군혁명대오에 필승의 열풍을 몰아 치는 오성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자리 잡은 마음의 성산이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오성산에 오르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선군길이며 그 길은 영광 넘친 승리의 길, 삶의 길임을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한 군대와 인민의 강렬한 지향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여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민족을 구원해 주신 위대한 선군령장을 피 끓는 심장으로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다.

오성산에 올라 보라.

가파로운 경사길 굽이굽이 장군님 타신 야전차가 천길낭떠러지로 지치던 소름 끼치는 그곳, 우리 장군님 주저없이 차에 몸을 들이 대시던 그 언덕에 한번 서보라.

그러면 우리 장군님 그날에 안으셨던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어떤것이였던가가 심장에 새겨 지리.

오성산에 올라 보라.

오성산정점, 쭉 늘어 선 일만산악을 뒤에 거느린 그 령봉에 올라 우리 장군님 서시였던 그 전호가에서 발밑에 깔려 있는 적진을 한번 굽어 보라.

그러면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서 드세차게 격랑치던 멸적의 폭풍이 어떤것이였던가를 가슴 벅차게 새겨 안으리. 그리고 위대한 선군령장을 더 잘 모시고 더 높이 받드는 길, 그 길만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사회주의가 사는 길, 조선이 사는 길, 민족이 사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것을!

우리 장군님은 오늘도 그날처럼 오성산에 오르신다.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그리도 오성산을 잊지 못해 하시는 우리 장군님이 아니신가.

사회주의를 지키시는 우리 장군님의 오성산길,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떠메고 걸으시는 장군님의 오성산길은 끝없이 앞으로 뻗어 있다. 설사 오성산보다 더 험하고 피어린 산악이 앞에 나진다 해도 결단코 강행돌파하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선군신념이다.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사는 이 나라 장병들이여, 인민들이여,

누구나 우리 장군님 따르는 마음 안고 언제 어디서나 오성산에 오르자.

그러면 우리 장군님 펼치신 선군정치를 따라야 조국통일도 강성대국도 앞당겨 올수 있음을 폐부로 느끼게 될것이다.

≪나는 **김정일**장군께서 이 오성산에 한해에 두번씩이나 오르셨다기에 아마도 이곳에 어떤 위력한 신형무기나 대공격집단이 진을 치고 있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험하고 높은 령길을 톺아 올라 보니 군인들밖에 없었다. **김정일**장군은 바로 그 병사들을 통하여 선군정치를 받드는 이 나라 수백만 장병들의 모습을 보시였을것이다.≫

이것은 오성산에 올랐던 우리 나라 주재 어느 한 나라 대사관무관이 한 말이다.

옳다.

우리 총대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총대이다.

시련속에서 나누는 정이 더없이 두텁고 열렬하듯이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치는 선군정치는 장군님과 우리 장병들이 하나의 동지로 억척같이 결합되게 한 혼연일체의 격량이다.

선군이 아니였다면 어떻게 초도의 외진 섬초소병사들이, 오성산과 대덕산, 1211고지의 전초병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상을 그처럼 몸가까이에서 뵈올수 있었고 떨어 질래야 떨어 질수 없는 **김정일**총대식솔로, 제1의 동지로 될수 있었겠는가.

그 총대사랑의 정치가 아니였다면 어떻게 산세 험한 여기 오성산고지의 전초병들이 전호가에서 최고사령관동지와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을수 있었으며 감나무중대와 안변청년발전소의 군인건설자들이 장군님과 하나의 생명체가 될수 있었겠는가.

판문점초병들이 말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총 쥔 병사들을 선군의 기수, 돌격대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믿어 주고 내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량심이고 도덕이며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병사들을 ≪나의 병사≫, 혁명동지, 선군정치실현의 돌격대라 불러 주시며 믿음의 하늘, 사랑의 하늘을 통채로 다 안겨 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불바람 휘몰아 쳐 와도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군님 선군정치를 따르는 이 길에서 우리의 총대는 다진 맹세 변치 않을것이다.

결사옹위, 사생결단은 우리 총대가 화약처럼, 총탄처럼 만장약해야 할 백절불굴의 선군혁명정신이다. 이 정신이 없이는 선군길 한걸음도 못 가며 그 정신이 없이는 장군님과 뜻도 배짱도 걸음도 맞출수 없다.

오성산에 오르자.

계급의 총창 억세게 비껴 들고 적진으로 육박할 때 잠시라도 마음 약해 지거나 힘이 모자랄 때 있다면 어디서나 오성산에 올라 장군님의 의지로 신념을 굳히고 용기를 백배하자.

우리 최후의 결사전에서 총탄이 떨어 져 마지막수류탄묶음을 부둥켜 안고 원쑤의 무리속에 뛰여 들어야 할 그런 시각이 닥쳐 온다면 장군님 온몸으로 야전차를 떠미시던 여기 오성산언덕에 자신을 세워 보며 **김정일**결사옹위의 폭탄이 되자.

조국의 최전방 오성산마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선군조선의 무적필승의 기상이며 무한대한 힘이다.

원쑤들은 무서워 하라,

제국주의는 공포에 전률하라,

오성산이 이제 한번 불벼락 내칠 때 제국주의아성은 송두리채 폭파될것이다.

오성산에 오르신 장군, 오성산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 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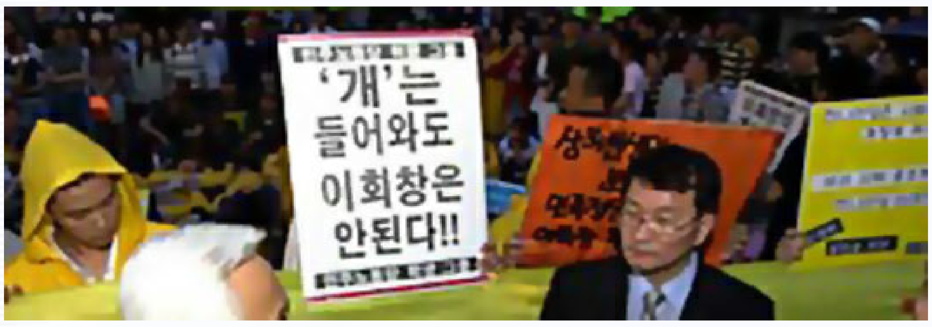
력사는 사생결단의 선군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의 정의를 수호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선군혁명대기념비 오성산과 더불어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더 높이 솟아 빛나라 오성산이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해 우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헤쳐 오신 붉은기수호전의 력사, 선군정치의 피어린 자욱자욱을 후손만대 길이길이 전하며 영원히 솟아 있으라!

오성산,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봉이여!

이회창은 청년학생의 적



전남대 김영일학생의 글 ≪이회창은 청년학생의 적≫을 계속해서 이철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깊게 들어주시죠.

광주, 22년전 5월의 광주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한 애국열사들의 피가 도랑을 지어 흐른 원한과 눈물의 땅이였다. 그 땅이 오늘은 민주화의 성지로 부상되어 각계층 민중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광주지역의 운동단체들은 물론 온 경향의 각계층 민중이 이곳을 찾아와 애국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그만큼 광주를 잊지 못해하는 것이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같은 민심을 자기의 입신양명에 악이용하는 정치모리배들이 있어 민중의 분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전 총재인 이회창이 그 대표인물이다.

지난 1일 그는 광주를 행각했었다. 5월을 맞아 광주항쟁용사들의 투쟁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때에 이곳을 찾은 그의 속셈은 불보듯 명백한 것이다.

대통령후보선출과 관련한 지지획득에 광분하고 있는 그는 자기가 마치 광주의지를 승계하는 정치인인 듯이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더많은 지지표를 얻어볼 속셈밑에 이곳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꿈은 그야말로 오뉴월의 개꿈으로 되고 말았다.

광주가 어떤 곳인가. 열흘낮 열흘밤 피의 항전을 벌이며 그날의 항쟁용사들이 쓰러지면서도 피나게 절규한 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자주, 민주, 통일, 바로 그것이였다. 그럴진대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해칠 야망에 들떠있는 극악한 사대매국분자, 반통일분자가 광주항쟁자들의 넋을 기린다며 찾아왔으니 이것이야말로 광주를 또한번 더럽히는 추악성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이것을 원한을 품고 쓰러진 그날의 항쟁자들이 안다면 무덤을 차고 일어나 분노를 터뜨렸으리라.

그렇다. 무등산이 분노하고 광주천이 격랑을 일으켰다.

≪영웅도시 광주에 이회창이 웬말이냐≫, ≪통일방해꾼 이회창의 광주방문반대≫, ≪6.15정신 거스르는 이회창 광주방문 결사반대≫, 이같은 외침은 광주시 어디서나 울려나왔다. 특히 남총련소속 대학생들은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후문에서 맹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같은 투쟁현장을 목격하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이회창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주되는 투쟁과녁이며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회창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주적이다. 정의에 과감하고 애국에 열렬한 청년학생. 그런 것으로 하여 이 시대의 정의이고 애국인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에서 열과 성을 다해가는 이 땅의 청년학생들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주, 민주, 통일이 생명과 같은 것이라면 이회창은 사대와 매국, 파쇼와 분열에 명줄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럴진대 이같은 민족반역배와 우리 청년학생들이 어떻게 한 강토에서 하나의 공기로 호흡하며 공생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청년학생과 이회창은 결단코 한가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불의 관계로밖에 될 수 없다.

남총련소속 대학생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이같은 투쟁지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회창이 갖은 요설을 늘어놓으며 우리 민중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들을 자기의 권력쟁탈에 악이용하려고 획책하면 할수록 대오각성된 각계층 민중과 청년학생들의 더큰 반격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광주만이 아닌 서울과 부산, 대구와 전주 등 이 땅 어디서나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이회창열풍을 드높이며 민족반역배들을 용납치 않으려는 열혈청춘들의 의지를 과시해 갈 것이다.

하나의 땅위에서 한 공기로 호흡하며 같이 살 수 없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이회창과의 관계를 남총련소속 대학생들의 투쟁소식과 더불어 조명해본 김영일씨 앞으로 더 좋은 글, 더많이 부탁드려요.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0일

구정치인 퇴출시켜야

지금은 선거철, 낮과 밤을 가림없이 정가는 움직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정치인들, 그들의 목적은 한표라도 더 얻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일단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그들이다.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더욱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도전하고 있는 수구정객들을 보는 민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민중은 그들의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실망과 환멸을 느낄대로 느꼈다.

이제 국민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요망하고 있다.

현실과 멀리 떨어진 구정치인들에게서는 사회의 발전과 민중의 복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정치인들은 이른바 정통성을 운운하며 사회적 진보와 그를 위한 개혁을 반대하면서 기득권추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특히 한나라당과 그의 대선후보인 이회창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들의 모든 행적은 시대와 역사발전을 저해하고 민족, 민중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실지로 전 한나라당총재 이회창과 그의 집단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국회회의장점거농성도 하고 거리행진과 장외집회도 벌였지만 민중과 민족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노동조건개선과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경제와 민생파괴행위로 몰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반국가행위로 매도하면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한사코 방해해 온 것 뿐이다.

그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모든 남북교류와 협력, 대화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중상하며 마치 이북에 많이 퍼주어 경제가 침체하고 민생이 악화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철무기값으로 미국에 퍼주는 40여억달러는 쌍수들어 환영하고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다 못해 미국에까지 찾아가 민족공멸을 불러오는 대북압살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당, 이런 정객이 민중과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지금 이회창을 비롯한 보수적인 구정치인들이 국민과 유권자들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자신이 보여준 반민중적, 반민족적 행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한다면 민중과 민족이 더 큰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사회와 문명의 진퇴, 민중의 고락은 당대정치인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

이제 정치권은 의연히 보수의 진흙탕 속에서 헤매이는가 아니면 진보와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권을 획득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자면 이 기회에 이회창과 같은 보수인물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 민중 모두가 힘을 합쳐나설 때 현실로 될 수 있다.

노선일 - 구국전선 제479호
주체91, 5월 21일

학습은 활동가의 첫째가는 임무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서 청년학생들에게 거는 각계층 민중의 기대, 날로 커가고 있는 오늘 학생운동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살펴보는 건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번에 나누어 이에 관한 문제를 놓고 얘기하려 하는데요. 오늘은 ≪학습은 활동가의 첫째가는 임무≫,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누어드리죠.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학생운동에 관한 각계층 민중들의 기대 참으로 크잖아요. 학생운동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우리 청년학생들 모두가 시대앞에 지닌 사명과 책무를 더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학생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학습이 활동가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로 된다는데 관해 얘기 나누도록 하죠. 먼저 학습이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로 되는 이유에 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외세를 척결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격렬하게 벌이지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학생운동가들로 하여금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활동해나갈 걸 더욱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자질과 능력형성의 기초는 바로 학습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습은 과학적 세계관과 사회역사관, 인생관을 제공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을 하지 않는 운동가는 과학적 세계관과 올바른 운동이론을 정립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정세를 분석하고 운동방향을 제시하며 대중을 궐기시키는 등 운동가가 갖춰야할 자질과 능력을 원만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 : 학습이 활동가의 임무로 될 뿐 아니라 학생운동을 활성화하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건 지나온 투쟁과정을 통해 뚜렷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흔히 운동가들은 지나온 1980년대를 돌이켜보면서 변혁의 열기로 들끓던 질풍노도의 시대라 하는데요. 학생운동이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도 이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은 원동력이라고 할까, 그에 관해 논할 때 당시 대학가마다에서 세차게 일었던 학습열풍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1980년대 학생운동권내에서는 말이죠. 활발한 이론논쟁과 사상투쟁을 통해 주체사상을 광범히 보급전파하고 주사파대열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같은 투쟁환경은 우리 청년학생들속에서 학습의욕을 더욱 북돋아주었고 왕성한 학습열풍속에 학생운동은 보다 생기를 띠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회자 : 정말이지 학습이 활동가의 생명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일부 운동가들속에서는 학습강화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관성과 경험에 입각해서 구태의연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대학 총학생회에서 있은 일인 일인데요. 총학생회장이 핵심일군들에게 한달에 서점 몇 번 가는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는데 많은 수의 일군들이 고개 묻고 대답 못했다고 해요. 학생운동활성화를 위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활동가의 생명으로 되는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그에 관해 도움이 되는 얘기 계속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현규 : 지금 각 대학 총학생회들에서 학습복원을 통해 사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활동들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편향들에 입각해서 운동핵심들이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속에서 학습열기를 드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방법상 문제만 몇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학생들 모두에게 학습의 목적과 그 중요성에 관해 올바로 인식시켜야 하고 학습강화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도 이같은 방향에서 벌여나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학습대상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역사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는데 학습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학습이 청년학생들의 자주성을 높이는데 초점 맞추기보다는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적으로 학습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가 대중의 투쟁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정세교양이나 하는 것으로 학습을 대충 떼우는 그런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건 아직도 일부 학생운동가들속에서 분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습을 정파적 목적실현에 역이용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규 : 그런 현상이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기초학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파의 목적에 관해 주입시키고 정파적 견해만 달달 외우게 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 의사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며 운동권내에서 편가르기만 하는 그런 운동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학생들속에서 학습열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학습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창출, 구사해야 합니다. 학습의 주되는 형식에는 소모임학습, 학교식교양, 강연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식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특징과 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목적과 주제, 조건과 환경에 맞게 가장 정확한 방식을 선택해야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학생회조직들에서는 일상적으로 학습교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방학중에 학교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충하고 사상적으로 깊이 학습할 내용을 강연회 한번으로 대치하는 것과 같은 형식주의와 낡은 학습지도방법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건 대중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그 대중을 각성시켜 투쟁에 궐기시킴으로써 더높은 운동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봐지는데요.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운동단체들에서 ≪자주통일학교≫를 개설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가 아닙니까.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반미반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 등 각종 운동들이 활기를 띠고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핵심들은 이같은 투쟁환경에 걸맞게 학생대중을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로 총궐기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학습용 교재집필을 비롯한 여러 활동에도 목적의식적으로 참여해야 하죠.
사회자 : 우리 청년학생들 모두가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과학적인 운동이론과 전략전술을 소유하고 그에 입각해서 투쟁해 나갈 때 학생운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서도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얘기 나누어줘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0일

통일연대, 통일부 항의방문

통일연대, ≪정 통일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 재 촉구≫

통일연대는 21일 오후 2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면담 무산과 관련 통일부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항의 방문은 지난 17일 통일연대가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으로 ≪6.15민족통일대축전 실무접촉(5월 13일) 무산에 대한 공개질의 및 면담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통일부 측은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일정 관계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일연대의 한충목(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한 9명은 통일부의 이충원 교류2과장과 30여분간 얘기를 나눴다.

통일연대는 13일 실무회담 무산과 관련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통일부 장관과의 확실한 면담 일정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일연대는 내일 오전까지 통일부 측의 입장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실제 초청장과 관련한 서류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 민경우(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이 묻자 통일부 이충원 교류2과장은 ≪서류가 가접수 상태≫라고 답변했다.

초청장 문제는 작년 8.15민족대축전 이후에 국회와 언론 등에서 민간교류의 방북 승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현재는 ≪합법적 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은 안된다≫는 승인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연대는 그 외의 질문들은 정식 면담을 통해 답변을 듣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날 항의 방문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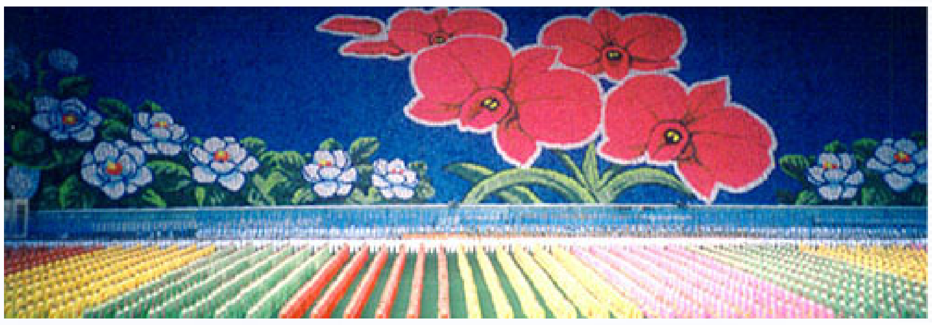
한편, 통일연대는 항의방문을 마치고 통일부 앞에서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통일부의 답변을 듣고 난 후로 이를 늦추었다.

통일연대는 1인 시위 외에도 향후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지도부 농성≫(5.25)과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5.30) ▲범국민대회(6.1)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정미 기자
2002/05/21 통일뉴스

훌륭한 대걸작, 황홀한 공연

외국 손님들 찬양, 감탄



≪아리랑≫을 본 중국손님들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중국손님들은 대걸작품이라고 찬양하였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회장 하로려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예술적으로 집약화하여 훌륭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훌륭한 대걸작, 황홀한 공연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연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일생을 두고 후회 하였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서기장 우강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에서만 창작할수 있는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하면서 공연을 통하여 조선의 체육과 예술의 발전면모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중국공산당 료녕성 단동시위원회 서기 채철부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민족적색채를 잘 살리면서도 조선의 시대적특징들을 선명하게 펼쳐 보이고 있으며 조선인민의 창조력과 조직력, 단결력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관광기구 총서기도 감탄 표시

세계관광기구 총서기 프랑쎄스꼬 프랑지알리가 17일 5월1일경기장에서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그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매우 감동적으로 관람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관광업을 전문한 사람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 보고 예술공연도 많이 보아 왔다.

그러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처럼 매우 훌륭하고 독특한 작품은 처음 보았다.

나는 이처럼 큰 규모의 집단체조와 황홀한 예술공연을 본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2002/05/21 조선신보

이회창, 97년 대선때 아들 병역비리 조직적 은폐

주간 오마이뉴스 보도에 한나라당 법적 대응 방침

97년 12월 10일, 병역비리 의혹으로 이회창 차남의 키를 재보고 있다

주간 오마이뉴스가 지난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큰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이 후보측은 이를 전면 부인,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발단은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21일자 주간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비롯됐다.

주간 오마이뉴스는 ≪전 병무청 고위간부 K씨가 올 1월 서울지검 병역비리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씨 큰 아들 정연씨의 불법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와 또 다른 병무청 간부 Y씨, 그리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K특보, J의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진술을 했다가 재수사 때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주간 오마이뉴스는 또 ≪K씨는 초기 검찰조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대책회의 끝에 국군 춘천병원에 남아있던 병역판정 부표를 파기했으며 병무청에 남아있는 병적기록부 원본도 변조했다≫는 진술도 함께 했다가 검찰이 조서를 꾸미려 하자 부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주간 오마이뉴스는 이어 검찰의 한 간부가 ≪K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책회의 등과 관련해) 그렇게 진술했다가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회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 원칙적으로 수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중요한 시기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물타기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배 부대변인은 ≪≪(K씨의 진술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검찰의 공식 입장도 확보했다≫면서 ≪정연씨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불확실한 취재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 신문의 생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 부대변인은 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적은 있으나 병무청 관계자 등을 포함해 사건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배 부대변인은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편집인과 해당 기자를 대상으로 2~3일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대응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주간 오마이뉴스의 김당 편집장은 ≪병무청 관계자의 진술, 검찰 수사자료 등을 취재한 결과≫라며 ≪보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주간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진위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수뢰혐의로 구속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당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K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실제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정연씨의 병역판정 부표를 파기하고 병적기록부 원본을 변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97년 이 후보 측근과 병무청 전 간부 등이 정연씨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정연씨의 병역기록이 변조됐다는 등의 첩보는 입수돼 있으며 공문서 위·변조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임경구 기자
2002/05/21 프레시안

진보정당 서울시장후보

《MBC100분토론》 출연

서울시장 다섯 후보 모두 출연시키기로 결정

시사토론방송으로 많은 호응을 얻어온 MBC 생방송 《100분토론》이, 서울시장 다섯 후보를 모두 초청하여 방송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김민석(민주당), 이명박(한나라당) 후보뿐 아니라 이문옥(민노당), 원용수(사회당), 임삼진(녹색평화당) 후보 등 5명을 모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KBS가 두 후보만을 초청하여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0분토론》을 맡고 있는 김학희 부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 MBC에서도 규정에 의해 토론자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군소후보의 방송 토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기회에 모든 후보를 초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다섯 후보를 모두 초청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토론의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100분 토론의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가져나갈 것》이라며, 《평소와 다름없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00분토론》의 결정과 관련하여, KBS의 불공정 방송에 항의해온 이문옥 팬클럽 《깨끗한 손》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자신을 평범한 시민으로 소개한 한 《깨손》 회원은 《KBS와 달리 군소후보도 초청한 MBC의 결정은 공정한 방송을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일보나 경남도민일보 등 지방언론은 공정한 반면, 중앙 언론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번에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 손》은 21일자 중앙일보 8면 광고를 통해, KBS의 불공정 방송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이후 KBS 앞에서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KBS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석 기자
2002/05/21 오마이뉴스

진보 정당과 방송

《대부분의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건 물론, 혐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한다고 가정해보지요. 예컨대, 모든 돈의 지출 내역을 월별로 유권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되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든가, 서민의 고충을 알기 위해 주 1회 공공 봉사 노동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 참신한 방안들을 실천하는 거지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한 일을 《엠비시스페셜》이 다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당이 그걸 《불공정 방송》이라고 주장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더이상 못 참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면서) 이 썩어빠진 정치를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겁니까? 당신들 지금 제 정신입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깨끗한 정치》 하겠다고 경쟁해보세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다큐멘터리 만들어 땅에 떨어진 당신네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괜한 어거지 쓰지 말고 《엠비시스페셜》에 감사장이나 드릴 생각 하세요.》

지난 1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한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노사모》에 초점을 맞춘 《엠비시스페셜》의 공정성 문제를 추궁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비록 내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방송위원회는 물론, 방송사들이 그런 식으로 좀더 당당하게 정치권을 대하는 건 물론 참된 의미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애써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방송사들이 6·13 지방선거 관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후보들을 배제하는 건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그건 방송법은 물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방송사들은 미국과 일부 유럽 나라들도 그렇게 한다면서 그건 불가피하다고 강변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방송사들에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 프로그램이건 무슨 프로그램이건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면 한국엔 진보정당이라는 게 아예 없다. 방송사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진보정당들을 브라운관에서 박멸한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는 방송사들의 진보 정당 차별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 5항은 괜히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은가.

텔레비전 토론의 경우, 후보들이 많을 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 그러나 그 문제도 공론화해 그 어떤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성의는 보여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성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진보정당들의 주요 행사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텔레비전 뉴스의 횡포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신문들은 어떤가. 《조선일보》 같은 수구 신문들은 진보정당의 성명을 현 정권과 노무현 후보에 대한 비판 용도로 악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보정당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진보 정당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7일치에 쓴 칼럼에서 각종 《죽이기》 표현이 난무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국이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면, 김 논설위원은 정신병자라는 말인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우선 《조선일보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며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소수자 죽이기》가 바로 그 대표적 증상이라는 식의 자기 성찰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자기 성찰이 전무한 조선일보가 뿌려대는 이런 독소의 해독을 위해서도 앞으로 방송이 해야 할 일이 많으리라 믿는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
2002/05/21 인터넷 한겨레

월드컵에 노점상 밥그릇 날아가나

도봉구청이 주민 민원과 거리 정화를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노점을 철거해 노점상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도봉구청은 20일 새벽 구청과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도봉구 내 재래시장인 《창동시장》 골목 안쪽에 세워둔 노점상들의 리어카를 기습적으로 철거했다.

도봉구청의 이번 철거 조치는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시간, 시장 주민들조차 알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진행돼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월드컵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 노점상인들 사이에선 《월드컵 성공을 위해 서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창동시장 노점 철거를 위해 도봉구청 용역직원들이 나타난 시간은 20일 새벽 4시경. 검은 옷과 워커로 몸을 감싼 이들은 시장 입구와 안쪽 교차로 한켠에 세워진 노점 20여 개를 불과 30여 분 만에 뜯어내 버렸다.

시장 입구에는 이들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버리고 간 그릇과 의자 등이 순식간에 널부러졌고, 리어카 속의 내용물들은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버려졌다. 빈 박스와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순식간에 길 한편을 메웠다.

뒤늦게 자신들의 《밥줄》이 부서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노점상들이 달려나왔지만, 용역직원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부서진 리어카의 잔해뿐이었다.

당시 철거 장소에 있었던 한 노점상은 약 80여 명의 용역직원이 철거작업을 하는 자리에 경찰들까지 출동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마침 자리에 있던 다섯 명의 노점상이 용역직원들과 맞섰지만,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용역직원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점상과 시장 주민들은 경찰이 그 《폭행》의 자리에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도봉구 노점상들과 이번 사건 때문에 창동시장으로 모여든 노점상들은 월드컵 개최에 맞춰 정부의 단속이 전국적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노점상 북부지역연합회 김낙준 조직부장은 《도봉구청의 《철거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도봉구청을 방문, 구청 관계자들과 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20일부터 창동시장 앞에서 거리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2002/05/20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22일부터 파업 돌입

민주노총이 22일부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 5일 근무》 《노동운동탄압분쇄》 《국가기간산업사유화 저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과 산별교섭 쟁취》를 주요 요구로 시기집중 파업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22일 두산중공업, 만도기계, 통일중공업, 금호타이어, 코오롱 등 100여 개 사업장 3만여 명이 파업이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23일 부터는 보건의료노조 70여개 지부, 사회보험노조등 3만여명이 파업에 돌일할 예정이다. 또한 24일 부터는 민주택시연맹 1만여명이 파업을, 26일에는 전교저 1만5천여명이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정의헌, 이하 부산지역본부)는 22일 20여개 사업장 52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11개 사업장이며, 22일 저녁 보건의료노조 3개 지부가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23일 부터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파업을 전개중인 일반노조 3개 사업장과 28일 새벽 4시부로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가세한다.

부산지역에서 첫 파업에 돌입하는 금속노조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7대 요구 쟁취, 노동운동 탄압 분쇄 금속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 6월에 집중되어 있는 임단협시기. 올해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 김대중정권은 노사평화를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40여명의 구속노동자와 100여명의 수배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해고자, 가압류, 고소고발등의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가능하다고 맞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민정 기자
2002/05/21 오마이뉴스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1)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최근논문의 비교연구

서론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2. 두 논문의 의의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7. 새로운 이론쟁점
결론

서론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은 조국반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근본적인 정세변화는 불가피하게 전략전술의 변화를 불러왔다. 주체시대에 조국혁명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는 전략의 근본문제가 있는 반면 정세변화에 신축적으로 조응하는 전략의 변화, 전술의 변화가 있는 법이다. 시대추이와 정세변화에 암둔하거나 새로운 전략전술의 탐구에서 소극적이라면 미제국주의와 사대매국세력과의 투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간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주체혁명의 새로운 전략전술을 진지하게 탐구한 많은 이론가 중에서도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은 단연 돋보인다. 두 이론가는 주체적인 정세관에 근거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개념을 구사하며 실천이 요구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민족민주대오에 내놓았으며 그 이론들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 이론들에 반대하는 일부단위의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그 공감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필자는 그간 두 이론가의 새로운 견해를 담은 논문들을 분석검토하면서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오랜 기간의 준비와 실천적 관점이 없이는 내놓을 수 없는 이 공들인 논문들이야말로 우리 운동대오가 당면투쟁을 전개하는데서나 전망목표를 수립하는데서나 깊이 참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부족하지만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주로 연구분석한 논문들은 최성원동지가 대표집필한 ≪두 개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이하 ≪두개전선≫), ≪현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이하 ≪이론문제≫와 통일학연구소 한호석소장의 ≪조미관계 10년을 통해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이하 ≪통일정세≫),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이하 ≪전략적 과업≫)이다. 그리고 이 논문들 중에서도 최근에 발표되고 보다 정식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론문제≫와 ≪전략적 과업≫를 위주로 비교설명하고자 한다. 두 이론가 중에서 최성원동지를 앞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 동지의 논문이 한호석소장의 논문보다 앞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최근의 근본적인 정세변화를 분석하고 주체의 전국적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전술을 적극적으로 탐구한 문제작이다. 다른 논문에서는 볼 수 없는 두 논문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두 논문의 정세인식은 공히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전략의 승리이고 원대한 통일혁명전략의 일환이며 그 결과 조국반도의 정세는 머지 않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할 승리적 국면이라는 것이다. 한호석소장이 민족주체적 정세관이라고 명명한 이러한 정세인식은 최성원동지의 논문에서 ≪전략적 승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두 논문은 모두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발전하던 정세가 내외 반통일세력의 준동으로 일시적인 곡절을 겪고 있지만 통일혁명의 전도는 양양하며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정세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둘째, 두 논문은 공히 이러한 근본적 정세변화에 걸맞게 주체의 기성이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은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는 조미공동코뮈니케와 남북의 최고지도자간에 민족자주원칙과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성을 확인한 6.15공동선언이 천명된 조건에 맞게 주체의 전략전술도 새롭게 보완되고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체의 기성이론이 이러한 정세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조건에서 수립된 만큼 주체의 전략전술을 조성된 정세에 맞게 보완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째, 두 논문은 공히 새로운 전략전술을 전개하는데서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이 모두 반국적 관점을 배격하고 전국적 관점을 견지할 데 대한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한편 실제로 그러한 전국적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전술을 제기하고 있는 점은 매우 돋보인다. 두 논문이 강조한 전국적 관점이 조국혁명 차원에서 정세변화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통일혁명의 승리가 도래하였다고 전망하는 낙관적인 정세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네째, 두 논문은 공히 전국적 관점에서 주체의 통일전선이론과 민족해방혁명이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은 이상의 정세관과 전국적 관점에 기초하여 이러한 정세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고 전국적 관점 하에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절박하지 않았던 기성의 통일전선이론과 민족해방혁명이론을 새롭게 보완정립하고 있다. 두 논문은 나아가 전국적 관점의 혁명영도체계론까지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이를 전격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한호석소장도 그간의 논문들을 분석해보건대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두 논문이 새롭게 제출한 전략전술론은 모두 이남활동가들의 당면요구, 정세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전술론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두 논문의 의의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주체 90(2001)년 하반기에 발표되어 이남운동대오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논문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우선 두 논문은 조국의 통일혁명을 중심에 놓고 승리의 낙관적 전망을 밝혀주는 주체적인 정세분석으로 우리 활동가들과 애국민중에게 혁명적 낙관주의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을 통하여 우리 활동가들과 애국민중은 머지 않은 장래에 통일혁명의 승리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또한 두 논문은 이남운동대오 내의 고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인 반국적 관점을 극복하고 전국적 관점을 확립할 수 있는 정세관과 정치노선, 조직노선, 투쟁노선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은 당면정세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국적 사상관점을 전략적 전취목표, 통일전선론, 혁명영도체계론, 투쟁전술론 등으로 구체화하며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또한 두 논문은 근본적인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출함으로써 주체의 전략전술론을 풍부심화시키고 있다. 두 논문이 기성이론의 핵심을 계승하면서도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킨 통일전선론이나 민족해방론은 모두 주체의 전략전술론을 풍부심화시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두 논문은 우리 운동대오가 당면정세에서 전개하여야 할 투쟁의 전략과 전술도 새롭게 제출하고 있다. 두 논문은 모두 우리 운동대오가 당면해서 반미자주화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쥐면서도 반민주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그 존립기반인 국가보안법체제를 분쇄하여야 한다는 투쟁의 집중타격지점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두 논문에 공통되는 중요한 의의와 함께 ≪이론문제≫는 지역통일전선론과 민족해방혁명론, 혁명영도체계론을, ≪전략적 과업≫은 민족자주완성론과 일반민주주의변혁론, 민족통일기구수립론을 각각 이남운동대오에 처음으로 제출하면서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정세변화가 제기한 여러 이론문제들을 입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결국 두 논문의 심도 있는 사상이론활동으로 인하여 통일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목표와 실현경로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각각 독특한 구성체계를 이루고 있다. 먼저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는 크게 세개의 체계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통일전선론이고 둘째, 민족해방혁명론이며 세째, 혁명영도체계론이다.

≪이론문제≫는 첫째체계인 통일전선론에서 전략적인 통일전선인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의 개념과 함께 기성이론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통일전선이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임을 해명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공동전선, 전술적 공조라는 개념을 통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형성된 북남해외의 하층통일전선과 북남정부간의 상층통일전선, 남의 민족민주전선과 이남정부와의 관계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또한 전술적 실패와 전략적 승리라는 개념으로 6.15공동선언 이후의 이남정세를 설명하며 지역통일전선을 강화하고 국내 반통일세력들을 제압할 데 대한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둘째체계인 민족해방혁명론에서 전국적 관점의 민족해방혁명론을 정립할 데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성이론의 제한성을 지적하며 북의 혁명역

량도 민족해방혁명역량이며 민족해방혁명, 조선혁명은 두 지역혁명의 당면과업을 규정하며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상위의 혁명이라는 점을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단위의 반국적 관점의 견해에 대해 기성이론과 대비하며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견해로 반박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세째체계인 혁명영도체계론에서 전국적 관점에서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의 조직적 결합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는 조선노동당과 이남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간의 조직적 결합이라는 혁명영도체계를 수립할 때에만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이남민족민주전선을 강고하게 건설할 수 있고 이남지역혁명도 승리할 수 있다는 대담한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이론문제≫의 이상의 구성체계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세 체계, 곧 무장투쟁론, 통일전선론, 당건설론의 체계와 유사한 특징이 있다. ≪이론문제≫는 이상의 기본구성체계를 견지하면서 일부단위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근본적인 정세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제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그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세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과 동력, 실현경로를 해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략적 과업≫의 첫째체계에서는 민족자주와 민족해방의 개념차이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반제자주적 성격을 해명하며 이 전략적 과업이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이라는 다른 두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며 그 수행과정을 선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반제자주역량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민족민주역량으로 규정하면서 이남 일부단위의 ≪비주체적≫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소아병적 사고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현경로는 다른 두 전략적 과업과 달리 1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략적 과업≫의 둘째체계에서는 일반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라는 개념차이를 설명하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서 민주강령이 제기하는 민주주의의 성격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또한 민주변혁운동의 중심동력을 기층민중으로, 보조동력을 중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민주주의단계를 거쳐서 민중민주주의단계로 발전한다는 민주변혁의 두 단계 실현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서 진보정당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과업≫의 세째체계에서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연방제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의 조직적 결합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각계각층이 결합된 동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남의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타격하는 한편 개혁성과 민족성을 띠는 개혁세력과는 공조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을 조직적으로 실체화한 것이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결성될 민족통일기구라고 강조하며 두 단계의 연방제를 거쳐서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략적 과업≫의 구성체계는 이와같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는 체계를 따라가며 ≪민≫지의 질문과 일부단위의 비판에 유념하면서 전국연합의 ≪9월테제≫에 대해 보충하는 형식으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의 성격과 동력, 실현경로를 해명하고 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6호)

광 고

구국전선 제479호

주체91년 5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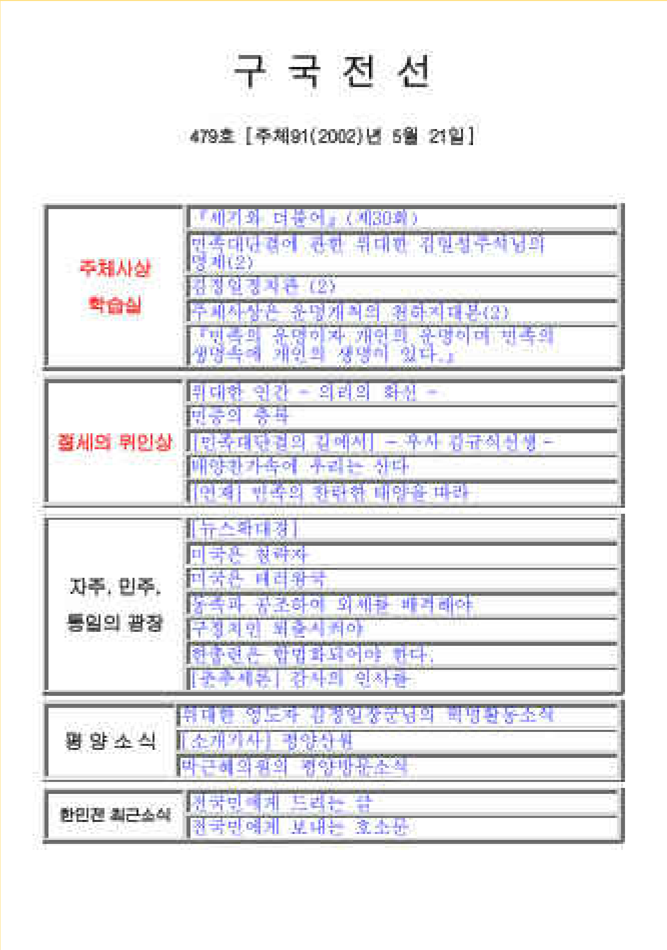
주체사상 학습실
≪세기와 더불어≫(제30회) / 민족대단결에 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명제(2) / **김정일**정치관 (2) / 주체사상은 운명개척의 천하지대본(2) /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절세의 위인상
위대한 인간 –의리의 화신– / 민중의 충복 / ≪민족대단결의 길에서≫ –우사 김규식선생– / 태양찬가속에 우리는 산다 / ≪연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뉴스확대경≫ / 미국은 침략자 / 미국은 테러왕국 / 동족과 공조하여 외세를 배격해야 / 구정치인 퇴출시켜야 / 한총련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 ≪춘추세론≫ 감사의 인사를

평양소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 / ≪소개기사≫ 평양산원 / 박근혜의원의 평양방문소식

한민전 최근소식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구 국 전 선

479호 [주체91(2002)년 5월 21일]

주체사상 학습실	『세기와 더불어』(제30회)
	민족대단결에 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명제(2)
	김정일정치관 (2)
	주체사상은 운명개척의 천하지대본(2)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절세의 위인상	위대한 인간 – 의리의 화신 –
	민중의 충복
	[민족대단결의 길에서] – 우사 김규식선생 –
	태양찬가속에 우리는 산다
	[연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뉴스확대경]
	미국은 침략자
	미국은 테러왕국
	동족과 공조하여 외세를 배격해야
	구정치인 퇴출시켜야
	한총련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춘추세론] 감사의 인사를
평 양 소 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
	[소개기사] 평양산원
	박근혜의원의 평양방문소식
한민전 최근소식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